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영역 **생활과 윤리** 정답 및 해설

01. ④ 02. ② 03. ⑤ 04. ⑤ 05. ⑤ 06. ③ 07. ③ 08. ④ 09. ④ 10. ④
 11. ① 12. ② 13. ① 14. ③ 15. ① 16. ④ 17. ③ 18. ② 19. ⑤ 20. ⑤

1. 메타 윤리학과 실천 윤리학의 입장 비교

정답 해설 : (가)는 메타 윤리학, (나)는 실천 윤리학이다. 실천 윤리학은 현실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도덕 문제에 대해 도덕 원리를 근거로 하여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는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기술 윤리학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 ②, ⑤ 이론 윤리학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 ③ 메타 윤리학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2. 생명 과학에 대한 윤리적 쟁점 파악

정답 해설 : 갑은 강화된 이타심에 의한 친사회적 행동은 자극에 의한 타율적 반응일 뿐 도덕적 행위는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다. 이와 달리 을은 이타심 강화로 인해 증가한 친사회적 행동이 결과적으로 사회 이익을 증진하므로 도덕적 행위라고 보는 입장이다. 따라서 토론의 핵심 쟁점은 ‘강화에 의한 인간의 친사회적 행동은 도덕적 행동인가?’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①, ③, ④, ⑤ 갑과 을이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3. 아리스토텔레스의 예술 윤리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가의 임무는 일어날 법한 일을 이야기하는 데 있다고, 즉 개연성 있는 서사를 창작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예술가가 개연성 없는 서사를 창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가는 선인 혹은 악인을 모방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예술가는 악한 인간의 성품을 묘사할 수 있다.
- ②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 작품 속 인물은 선인과 악인으로 구분, 즉 도덕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③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 작품 속 인물이 현실의 행위하는 인간을 모방한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예술 작품 속 인물이 현실의 인간과 유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④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가는 선인 혹은 악은 모방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예술가는 인간의 유덕함을 작품 소재로 삼을 수 있다.

4. 죽음에 대한 도가와 불교의 입장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장자, 을은 석가모니이다. 장자는 도를 얻음으로써 삶과 죽음에 얽매이지 않고 초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석가모니는 도를 얻음으로써, 즉 연기의 법칙을 깨달음으로써 생사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열반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장자는 죽음은 기가 흠어진 것이므로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았다.
- ② 장자는 죽음 앞에 두려움 없이 초연해야 한다고 보았으나, 인륜의 도를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 ③ 석가모니는 죽음의 참모습을 자각하면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았다.
- ④ 석가모니는 삶과 죽음을 비롯한 우주의 모든 사물과 현상이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어 있음을, 즉 상호 의존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보았다.

5. 엘리아데의 입장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엘리아데의 주장이다. 엘리아데는 세속적 공간에 성스러움이 가득 차 있다고 보고, 종교적 인간은 세속적 공간에서도 성스러움을 체험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엘리아데에 따르면 자연과 세계는 초월적 신 자체가 아니라 초월적 신의 현현(顯現), 성현(聖顯)이다.
- ② 엘리아데는 세계는 신들의 손으로 완성된 것이어서, 세계 안에 성스러움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 ③ 엘리아데는 신이 창조한 세계는 실재한다고 보았다.
- ④ 엘리아데에 따르면 종교적 인간은 신과 직접 교류함으로써 성스러움을 느낄 수 있지만, 다양한 성현을 통해서도 성스러움을 느낀다.

6. 요나스의 책임 윤리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요나스의 주장이다. ㄴ. 요나스는 인간의 책임 범위를 현세대, 미래 세대, 지구 생태계 전체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보았다. ㄷ. 요나스는 인류가 존재해야 한다는 당위적 요청을 근거로 인류 존속에 관한 현세대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의무도 인간에 대한 책임을 함축하고 있다고 보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ㄱ. 요나스는 일상적 인간관계, 즉 현세대 간의 관계에서는 호혜적 책임이 성립된다고 보았다.
- ㄹ. 요나스는 선한 결과가 예견되는 기술도 도덕적 검토 대상이라고 보았다.

7. 과학 기술에 대한 입장 이해

정답 해설 : 소전제 ㉠은 ‘인공 지능 기술은 인간의 일자리를 축소시키는 기술이다.’

이다. ㉠에 대한 반론은 ‘인공 지능 기술은 인간의 일자리를 축소시키는 기술이 아니다.’이다. 따라서 ‘인공 지능 기술로 인간 노동이 필요한 직종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적절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④ 소전제 ㉠에 대한 근거로 적절하다.
- ②, ⑤ ㉠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적절하지 않다.

8. 직업관에 대한 칼뱅과 순자의 입장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칼뱅, 을은 순자이다. ㄴ. 칼뱅은 노동으로 얻은 부를 이웃에게 베푸는 선행은 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위라고 보았다. ㄷ. 칼뱅은 근면 성실하고 검소한 생활을 통한 직업적 성공을 긍정하였다. 따라서 칼뱅에 따르면 노동을 통한 정당한 이익의 추구는 권장될 수 있다. 순자는 노동을 통한 정당한 이익의 추구, 자신의 직분을 올바로 수행하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권장될 수 있다고 보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ㄱ. 칼뱅은 인간의 구원은 근면과 검소에 대해 주어지는 응분의 보상이 아니라, 신의 뜻에 따라 예정되어 있다고 보았다.
- ㄷ. 순자는 예(禮)는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사회적 역할을 분담하게 한다고 보고, 백성의 직분은 예를 기준으로 맡겨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9. 자연에 대한 칸트, 레오폴드, 싱어의 입장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칸트, 을은 레오폴드, 병은 싱어이다. ㄱ. 칸트는 도덕적 행위 주체성은 이성을 지닌 인간에게 있다고 보고, 도덕적 지위 결정의 유일한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레오폴드는 대지가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고 보고, 도덕적 행위의 주체성에 의해 도덕적 지위가 결정된다고 보지 않았다. 싱어는 도덕적 지위는 도덕적 행위 주체성이 아니라, 오직 쾌고 감수 능력의 유무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다. ㄷ. 레오폴드는 인류는 토지 공동체의 정복자가 아니라 평범한 구성원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종차별주의는 부당하다고 볼 것이다. 싱어는 종차별주의를 비판하며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모든 존재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칸트는 인간의 직접적 의무의 대상을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모든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라고 보고, 종차별주의를 부당하다고 보지 않았다. ㄷ. 칸트는 이성이 없는 자연물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적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자연물을 파괴하는 인간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레오폴드는 대지 윤리가 자원의 변경과 관리 및 사용을 막을 수는 없다고 보고, 자연물을 파괴하는 인간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싱어는 동물 중심주의자로서, 자연물을 파괴하는 인간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ㄴ. 싱어는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동물은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며, 동물의 고통에

대한 동정심은 도덕적 의무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칸트는 동물을 잔학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어긋나며, 동물의 고통에 대한 동정심은 인간 의무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10. 국가의 역할과 의무에 대한 홉스와 로크의 입장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홉스, 을은 로크이다. 나.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이성을 통해 발견한 법인 자연법에서 찾았다. 또한 홉스는 이성을 통해 발견한 ‘평화를 추구하라’, ‘자연권을 포기하라’, ‘규약을 준수하라’ 등과 같은 자연법을 준수하기 위해 이를 강요할 권력, 즉 국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군주와 시민은 사회 계약 이후에 자연법을 준수해야 한다. 르. 홉스와 로크는 모두 자연 상태의 모든 인간은 동일한 자연권을 가진다고 보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ㄱ. 홉스는 사회 계약은 개인들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 체결된다고 보고, 절대 군주는 사회 계약 이후 계약 이행을 강제한다고 주장하였다.

ㄷ. 로크는 자연 상태는 대체로 평화로운 상태이며, 개인의 재산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로크에 따르면 자연 상태에서 재산의 불평등은 존재한다.

11. 맹자와 노자의 입장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맹자, 을은 노자이다. 맹자는 사단, 즉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을 누구나 가지고 태어난다고 보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맹자는 수기가 바탕이 되어야 오륜의 참된 실천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③ 노자는 무위의 다스림을 이상적인 정치라고 보고, 무위의 다스림은 스스로 그러함 [自然]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④ 노자는 겸허하고 다툼 없는 덕이 무위자연을 나타낸다고 보고, 인간은 그러한 덕을 지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⑤ 맹자는 도를 따르는 사람은 타고난 선한 본성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보았다. 노자는 도를 따르는 사람은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본성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보았다.

12. 현대 예술에 대한 아도르노의 입장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아도르노의 주장이다. 아도르노는 문화 상품에 대한 소비는 표준화된 소비 양식이라고 보고, 문화 상품에 대한 대중의 선호는 상업적 전략에 대한 순응이라고 주장하였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아도르노는 문화 산업은 대중문화가 상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고 보았다.

③ 아도르노는 문화 상품 소비자는 합리적으로 대중문화를 지배하는 주체가 아니라,

규격화된 문화 상품을 별 저항 없이 스스로 받아들이는 존재라고 보았다.

④ 아도르노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다양한 수요에 맞게 그 유형이 규격화된 대량생산물을 소비하는데, 이는 표준화된 소비 양식이 될 뿐이다.

⑤ 아도르노에 따르면 문화 상품 소비자는 대중문화의 본질을 간파하는 합리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무력해진다.

13. 비판적 합리주의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칼럼은 비판적 논증과 반박에 귀를 기울이며, 경험으로부터 배울 용의가 있는 태도인 비판적 합리주의를 말한다. 칼럼은 경험 과학 이론은 그 이론을 반증할 수 있는 실험 결과를 얻는다면 뒤집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실험 결과에 의해 예측이 반증된 경험 과학 이론은 거부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칼럼에 따르면 경험 과학적 명제는 언제든 논박이 가능하다.

③ 칼럼에 따르면 비판이 원천적으로 반증 불가능한 사실 명제에 근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반증 가능성에 근거해야 한다.

④ 칼럼에 따르면 진리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상대주의 관점을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칼럼에 따르면 오류임이 증명되지 않은 과학 이론도 반증 대상이 될 수 있다.

14. 해외 원조에 대한 싱어와 롤스의 입장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싱어, 을은 롤스이다. ㄴ. 싱어에 따르면 원조의 목적은 인류의 고통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원조 대상의 기본적 필요 충족은 원조를 중단할 근거가 될 수 있다. ㄷ. 싱어는 도덕적으로 상응하는 중요성을 지닌 다른 일을 희생하지 않고 나쁜 일을 막을 수 있다면 그것을 해야 하며, 어떤 절대 빈곤은 그러한 나쁜 일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절대 빈곤에 처한 원조 대상의 고통을 막기 위해 원조 주체의 처지 개선은 유보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ㄱ. 싱어와 롤스는 모두 절대 빈곤의 감소를 위한 원조는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ㄷ. 롤스는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돕는 것이라고 보았다. 롤스의 입장에서 원조 대상국 내부의 불평등이 지나치게 심할 경우, 원조 대상국이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원조 대상국 내부의 불평등 감소를 원조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다.

15. 분배적 정의에 대한 롤스와 노직의 입장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롤스, 을은 노직이다. ㄱ. 롤스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정의의 원칙이 공정한 최초의 상황, 즉 자유롭고 평등한 상황에서 합의된 것이라는 생각을 담고 있다고 보고, 무지의 베일 속 개인들은 자유롭고 평등한 인격체로서 정의의 원칙에 합의하

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나. 롤스는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이 최종적으로 합의되는 정의의 원칙에 따라 행동할 수 있음을 서로 신뢰하고 있다고 보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ㄷ. 노직에 따르면 정당화될 수 있는 국가는 오직 최소국가이다. 하지만 최소국가가 아니더라도 개인의 소유 권리는 존재할 수 있다.

ㄹ. 롤스는 기본적 자유들은 다른 기본적 자유들과 상충할 때만 그 내부에서 제한되며 조정될 수 있다고 보고, 정의의 원칙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도 제한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16. 교정적 정의에 대한 칸트, 루소, 베카리아의 입장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칸트, 을은 루소, 병은 베카리아이다. 루소는 사회 계약의 목적은 계약 당사자의 자기 보존이라고 보고, 자기 보존을 위해 계약 당사자들은 생명권을 양도한다고 보았다. 이와 달리 베카리아는 생명권은 양도할 수 없다고 보았다. 루소의 입장에서 베카리아에게 제기할 수 있는 적절한 비판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루소는 사형은 살인범의 자발적 행위에 대한 응당한 형벌이라고 보고, 사형 제도는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② 칸트는 살인범에 대한 사형은 정의를 실현하는 형벌이라고 보았다.

③ 베카리아는 개인은 국가에 생명권을 양도할 수 없다고 보았다.

⑤ 칸트는 형벌의 경중은 범죄와의 동등성 원리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고, 오직 보복 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17. 칸트의 입장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칸트의 주장이다. 칸트는 자신과 타인의 인격을 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보았다. 칸트의 입장에서 거짓 약속은 친구의 인격을 목적으로 대우하는, 즉 존경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칸트는 인간은 목적으로 대우받을 존재라고 보았다.

② 칸트는 약속 준수의 의무는 도덕적 의무이고, 도덕적 의무는 자기 행복에 대한 열망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④ 칸트는 약속 준수의 의무는 친구와의 돈독한 정서적 유대를 위해 지켜야 할 조건적 의무가 아니라고 보았다.

⑤ 칸트는 거짓 약속은 결과와 무관하게 도덕적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18. 시민 불복종에 대한 롤스의 입장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롤스의 주장이다. 롤스는 차등의 원칙에 근거한 법이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나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위배할 경우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① 롤스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의 근거는 다수의 정의관이다. 이러한 정의관을 소수자가 공유하고 있다면 소수자가 지닌 정의관은 시민 불복종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③ 롤스에 따르면 준법의 의무는 기본적 자유를 방어할 권리와 상충할 수 있다. 기본적 자유를 방어하기 위해 기본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법에 대해 불복종할 수 있기 때문이다.
- ④ 롤스는 시민 불복종을 정의의 제1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대한 심한 위반이나 제2원칙의 두 번째 부분인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대한 현저한 위배에 국한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 ⑤ 롤스는 양심적 거부와 시민 불복종을 구분하였지만, 양심적 거부에 대한 국가의 규제도 다수의 정의관에 근거하여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19. 칸트의 영구 평화론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칸트의 주장이다. 칸트는 국가 간 적대 행위의 종식만으로 영원한 평화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으나, 국가 간 적대 행위가 종식되어야 영원한 평화 실현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칸트에 따르면 시민법 체제는 한 국가의 대내적 정치 제도를 지정하는 체제이다.
- ② 칸트에 따르면 세계 시민법은 이방인의 환대권을 보장하지만 영속적 체류권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 ③ 칸트는 국제 국가에 의한 영구 평화가 아니라, 각 국가의 주권이 인정되는 평화연맹에 의한 영구 평화를 주장하였다.
- ④ 칸트는 모든 국채가 아니라, 국가 간의 대외적 분쟁과 관련하여 국채를 발행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20.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입장 비교

정답 해설 : 값은 통일 편익이 분단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므로 통일은 꼭 실현해야 할 과제라는 입장이다. 이와 달리 을은 통일 편익이 통일 비용보다 적을 수 있으므로 통일은 꼭 실현해야 할 과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값과 을은 모두 분단 비용 해소와 통일 편익을 통일의 근거로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값은 분단 비용을 해소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을 통일 편익으로 본다.
- ② 값은 통일을 통한 사상과 양심의 자유 신장 및 사회적 약자들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통일의 근거로 들고 있다.
- ③ 을은 통일 비용이 증가하여 통일 편익이 통일 비용보다 적어지면 통일의 당위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본다.

④ 을은 통일 비용이 남북 경제 통합의 기대 효과와 같은 통일 편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